

# 19세기 언어철학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윤 한

(언어학과 부교수)

## 0. 서 론

르네상스 이후 서양에서 학문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학문적 명제는 이성적 추론에서 유도되었다. Descartes는 스콜라철학의 사변적 공론과 독단론에 반대하고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ans les sciences; plus la dioptrique, les météores et la géométrie*(1639)에서 이성주의를 주창했다. 그의 이성주의는 17세기 중반에 특히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모든 학문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성주의는 철학, 특히 논리학을 통해서 언어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 “데카르트 철학 Kartesianische Philosophie”에 비유해서 “데카르트 언어학 Kartesianische Linguisti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60년에 Port-Royal의 보편문법이 정립되어 50여년 동안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Port-Royal 문법학자들은 언어자료를 토대로 일반화의 원칙에 따라 언어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문법체계의 보편화를 시도했는데 그들의 특성은 논리정연하고 명확하며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표현법이다. 18세기 언어학은 보편문법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전개되었다

또 한편 보편문법학자들은 여러 언어의 문법적 형태목록과 어휘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표현면에서 여러 상이한 언어의 문법적 형태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언어를 표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비교대상이 된 언어의 실제자료를 토대로 언어체계를 분석, 비교하는 비교언어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세기에 경험주의<sup>1)</sup> 토대 위에서 자연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모든 연구의

---

\*이 논문은 194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Humboldt(1827, 114)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개념과 관계되므로 언어연구에는 순수이성적인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며 또 한편 개인 속에 실존함으로 경험적 연구방법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요소는 이성적, 언어적 구성요소는 경험적 자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의 언어연구는 종합적이다 Haym(1856, 471)은 Humboldt의 연구방법을 “관념의 개별화와 이러한 개별화의 재관념화”라고 칭했다

일환으로서 역사-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는데 그 기본원칙은 1) 역사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2) 진화로서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해석, 3) 심리학과 자연과학의 범주와 방법론의 원용으로 요약된다(Cherubim 1975, 8ff). 역사-비교언어학은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가설로서 그 목적은 1) 개별어의 비교를 통해서 인국어 공통조어를 재구하여 그 음운, 형태, 어휘 등을 기술하고, 2) 공통조어에서 어떻게 개별어가 분기되었으며 개별어의 음운, 형태, 어휘 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연구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불란서 혁명 이후 시민층의 승리로 “한 민족 한 국가”라는 낭만주의적 정치 이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형성에 언어학자들의 공헌이 컸다.<sup>2)</sup> 19세기 초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사물을 논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되어 등한시되었던 유기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으며 유기체 역시 물리적, 화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는 매우 복잡다양해서 물리적이거나 추상적 형식으로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간주되는 개체는 선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구성요소의 관찰과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만 유기체의 발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Meillet 1903~Printz 1909, 273f). 또한 그 당시 역사가들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모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실례로 Bernheim은 인류발전에 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Sommerfelt 1975, 178).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역사적 지식은 절대적이고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라고 믿었다. 19세기 중반기에는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의 토대가 되었던 철학적 사상 즉 낭만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언어의 역사적 및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진화론적 모델이 등장했다(Amsterdamska 1987, 44) 그 당시 사상가들인 Hegel, Marx, Darwin 등은 모든 사물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Schleicher가 사물의 진화에 관한 역사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듯이 그들에게는 역사적 연구방법만이 연구대상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인국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언어연구 방법은 그 당시 성행했던 철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언어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연구는 Herder, Schlegel, Humboldt, Schleicher, Steinthal, Paul, Wundt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일반적인 언어이론의 정립이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언어의 특성,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2) 예를 들면 Grimm은 1874년 게르만어학자 대회에서 한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총체라고 했다(Maas 1973, 32ff)

설명하고 언어진화(역사적 발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sup>3)</sup>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기에 유럽문화를 주도했던 낭만주의에서는 언어, 시, 신화 또는 예술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다. 그 결과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운동 즉 태고에 대한 신비의 실마리를 해명하려는 한 방법으로서 언어의 비교연구가 부각되었다. 또한편으로 19세기에는 물리학의 절대적 법칙과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이 타학문의 새로운 개념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하반기의 중반에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동일한 정밀과학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언어연구에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언어학자는 Schleicher<sup>4)</sup>인데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이후의 경험주의에서 비롯되었다(Robins 1973, 40).

언어를 자연과학적으로 고찰하려는 방법 외에도 Steintal은 언어를 인간의 활동 및 창조영역과 관련지어 인류학의 한 분야로 취급하려는 경향 즉 언어의 심리적 고찰방법을 언어학에 적용했다(Arens 1955, 252). 그리고 1860년 경에는 이상적이고 절대적 의식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정신적 생활의 개인심리적 기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개념 대신에 “개인적” 즉 개인정신적 활동의 기제가 학문적 고찰의 중심과제로 등장했다. 그 결과 개인심리학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개인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언어학에 도입되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4).<sup>5)</sup>

Bopp의 비교문법, Grimm의 역사언어학, Schlegel의 유형론 등이 19세기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세 경향은 Schleicher에 의해서 하나의 언어이론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Twaddel 1943, 151). 젊은이분법학파의 도전을 받기는 했지만 1920년대까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은 주로 Schleicher의 이론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실증주의적 철학사조의 테두리 안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Humboldt의 언어이론은 Saussure의 구조주의 이론이 언어학의 신기원을 열었을 때 독일, 이태리 등에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Koerner 1972, 257).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19세기 언어철학의 주류사상이 역사-비교언어학 이론과 연구방법의 정립에 미친 영향을 분석, 비판하는 데 있다. 필자는 시대정신이 언어학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역사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심리주의의 언어철학은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3)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과 관계되는 언어철학적 사조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4) Schleicher는 Hegel학파에 속하지만 그의 언어이론은 생물학(특히 식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Darwin의 *The Origin of Species*(1859)는 Schleicher의 언어사 전개 및 생물학적 언어연구 모델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5) 언어분석의 기본자료로서 화자의 의식에 나타난 심리적 과정에 관한 고찰이 이러한 심리적 연구방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끼쳤는데 그 원인은 언어의 특수성 즉 언어와 사고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 당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언어학자가 언어라는 연구대상을 시대사상과 관련되는 명제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가 사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용하여 고찰해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노력으로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고 언어본질에 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는데 필자는 인간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언젠가는 언어의 본질이 완벽하게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1. 역사주의 언어철학

수집된 다양한 언어자료와 여러 언어에 관한 기술을 토대로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는 이미 역사-비교언어학 이론정립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이 시기는 철학적(특히 논리학적) 연구방법에서 역사적<sup>6)</sup> 방법으로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19세기 초기에 보편문법 등 그 당시 언어이론만으로는 언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적 방법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이론의 필요성을 느꼈다 예컨대 그들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 체계화함과 동시에 연구대상에서 언어외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언어자료만을 가지고 언어의 개별적 특성과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당시까지 이룩된 모든 학문적 발견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비교언어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미 18세기에 **Brosses, Rousseau, Monboddo, Smith, Priestley, Herder** 등 다수의 철학자, 문헌학자, 언어학자 등은 역사철학의 창시자인 **Vico**가 *Principi di una scienza nuova*(1725)에서 제시한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언어학에 원용하려고 시도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231**). 다시 말해서 역사주의의 원칙이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비교 방법에,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언어분류 방법에 도입되었다

언어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역사적 방법뿐이라는 **Paul**의 주장은 **Herder, Schlegel, Humboldt, Grimm** 등 언어학자들의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Herder**(1772, 76)는 역사적 분석은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과거의 모든 언어단계에 관한 고찰은 현재의 언어상태를 파악하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했고 **Schlegel**(1808, 41) 역시 언어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했다. **Schmeller**(1827, 7f.) 또한 **Adelung**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상태는

6) **Schleicher**가 언어현상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Darwin**의 진화론을 도입한 이후로 언어학에서 “역사적”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Grimm**의 시대에는 “경험적”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철학적”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다 (**Telegdi 1967, 225-30**)

과거의 상태에서 유기체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적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 같이 언어간의 역사적 관계를 발견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역사-비교언어학의 과제인데 그 근본목적은 인간사고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 있다.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이에 상응하여 두 언어간의 관계 특히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면 즉시 그것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공통조어를 재구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낭만주의의 팽배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식민정책을 통하여 유럽제어 외에 다른 언어와 문화에 관해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산스크리트의 재발견은 역사-비교언어학 정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는데 Jones(1786)가 주장했듯이 산스크리트는 인국어 공통조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의 언어자료 없이는 공통조어의 문법적 분석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언어간의 구체적 비교연구를 통해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다는 확증은 역사-비교언어학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Pedersen 1965, 241f.). Grimm은 언어를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sup>7)</sup>로 간주하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로 과거나 미래의 어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역사언어학의 정립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은 Grimm의 *Deutsche Grammatik*(1819)에서 확립되었고 젊은이문법학과 시대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Grimm의 세대와 젊은이문법학과간의 언어연구 방법의 공통성이 역사적 방법이기 때문에 19세기의 언어학을 일반적으로 역사언어학이라고 칭한다 Grimm은 *Deutsche Grammatik* 재판<sup>8)</sup>의 서문에서 문법에 관한 일반논리적 연구방법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언어정신에 대한 고찰을 배제하기 때문에 논리적 방법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피력했다. Pott<sup>9)</sup>(1833-36, xii)는 Grimm의 게르만어 음운변화에 관한 역사적 설명방법 그 자체가 철학적 연구방법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역사적 연구방법의 우위성을 강조했는데 Grimm이 주창한 다음의 두 경험적 원칙은 그 당시 언어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Jankowsky 1972, 77f.)

1) 모국어<sup>10)</sup> 그 자체가 민족특유의 정신생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서

7) Humboldt는 원래 언어를 “생성되어진 것 *Gewordenes*”으로 정의했지만 또 한편 “생성되어질 것 *Werdendes*”으로 간주했는데 이것은 그의 언어에 관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뜻한다

8) Grimm은 1818년에 발표된 Rask의 고대 북구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Deutsche Grammatik*의 작업을 중단하고 1822년에 이미 출판된 재판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Grimm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운법칙을 공식화(도식화)했는데 그의 연구결과는 언어자료의 정확한 관찰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9) Pott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어학의 개별적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10) Grimm은 모국어를 중시했기 때문에 언어능력의 자유스런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모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모국어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르쳐야하는 사항이 아니다.

고전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2) 몇 세기 동안 고전어 연구에서 축적된 문헌학적 연구방법은 모국어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문헌학적 방법 즉 텍스트비판, 문법적 및 의미론적 해석도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언어설명에 원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가 바로 언어본질에 관한 파악을 위한 최적의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Grimm은 원칙적으로 세 종류의 언어연구 방법 즉 철학적, 비판적 그리고 역사적 방법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인정했지만 그중 역사적 방법을 가장 중시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 발전을 도외시한 기능체계로서 현존하는 언어의 문법을 인정했지만 과학적인 연구대상으로서는 부인했다. 그에게는 과거의 언어는 낡은 고물에 불과했다. 언어 그 자체에 의해서 표현되는 공통적 유대관계는 음성적 유사성이 아니라 역사, 전통 그리고 사고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의거해서 유지된다.

Grimm의 시대에 음성적 범주는 언어의 본질적 연구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sup>11)</sup> 그 이유는 Humboldt의 작품 Ergon - 작용 Energeia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작품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Grimm이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가 음성으로 표현된 언어의 파생물이라는 사실을 이해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중시하는 언어학자로서 녹음된 음성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어의 역사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음성으로 표현된 언어)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에는 5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편 그는 미래의 언어변화 경향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러한 추정은 음운변화가 규칙적이고 의미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성환경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음성과 의미가 분리된 현상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면 그의 주장이 언어철학과 역사언어학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ibid. 81).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에 관한 연구를 역사적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19세기의 언어학을 역사언어학이라고 지칭하며 역사언어학은 합리주의적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이론과 연역적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경험과 언어기술의 귀납적 방법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비역사적, 기술적 방법 즉 합리주의적, 논리적 원칙에서 유도된 언어의 상대기술을 지양하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토대로 언어상태에 관한 설명이 언어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적 조직이나 제도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 즉 역사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면 본질도 규명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에 관한 설명은 선험적으로 주

11) Grimm의 *Deutsche Grammatik* I의 초판에는 음성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구성요소의 연속적인 역사상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Paul(1975, 21)이 역사적 발전과정을 모르는 언어를 완벽하게 고찰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언어학을 역사과학으로 간주하고 특히 언어사를 중시했지만 언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개별어의 현재 언어상태를 우선 공시적으로 기술해야함을 강조했다.

역사언어학은 비교언어학보다 후에 정립되었으며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은 비교방법의 발전이 역사언어학의 연구결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는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두 분야 모두 큰 발전을 보지 못했다. Grimm 이후부터 언어연구의 목적을 특정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분석 방법은 젊은이문법학파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부터 언어학은 언어학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하게 되었다.

언어이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19세기 말기에 개별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재구에 대한 관심을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일반원칙을 추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Cherubim 1975, 20f.). Paul(1975, 4)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일반적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면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에서 아무런 연구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방법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의 기본원칙은 모든 역사과학<sup>12)</sup>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례를 기술하고 법칙화하는 학문을 필요로 한다(Schmid-Neuhaus 1978, 143). Paul(1975, 1)은 언어학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회과학인 동시에 문화과학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과학과 같이 역사적 고찰의 연구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역사적 고찰만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대상물의 일반적 생활조건에 관해서 연구하고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항존하는 요소의 본질과 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원리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컨대 그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메타이론으로서 원리론을 정립하는 데 그 당시 언어연구의 기본원칙인 역사적 연구방법을 원용했다.

로만스어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연구방법론의 확립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Diez는 *Grammatik der romanischen Sprachen*(1936-43)에서 문헌상으로 이미 고증된 라틴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규명하여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모델로 제시했다.<sup>13)</sup> 이러한

12) 그 당시 학문분류법에 따르면 역사과학은 일반법칙과학 *nomologische Wissenschaft*과 대비를 이룬다

13) Hall, Jr (1972, 26)는 로만스어의 재구과정에서 젊은이문법학자들이 별표를 붙인 재구형을 남용하고 음운변화, 유추현상, 차용 등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고 그들의 연구방법을 비판했다

경우와 같이 문헌이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역사적인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언어변화<sup>14)</sup>의 시기와 장소를 비교적 명료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어와 같이 문헌부재의 경우에는 음운의 대응관계만이 유일한 연구대상이 된다(Meillet 1903 ~ Printz 1909, 16).

Paul은 언어를 유기체로 간주한 Schleicher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부인하고 역사적 연구방법을 체계화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학은 자연과학적인 고찰의 대상이 아니고 역사적 고찰의 대상이다. 그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이 아니면서도 과학적인 언어의 연구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관찰자의 실수나 불충분한 연구자료에서 유래된 불완전한 방법일 뿐이라고 역사적 방법의 절대성을 강조했다(Paul 1975, 20). 그에 의하면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의 확증을 넘어서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역사적 방법이다. 그가 주장한 언어의 역사적 연구란 언어자료를 시대순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아니고 언어현상의 인과관계 및 언어발생에 관한 연구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사실은 전단계의 언어현상이 역사적 발전과정 즉 규칙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결과로 해석된다<sup>15)</sup>

Paul은 언어연구에서 언어변화를 가장 중시했는데 언어변화는 발화행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언어연구의 대상은 모든 개인상호간 언어행위의 총화로 확대된다. 따라서 그의 언어활동에 관한 개념은 언어행위의 순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정의 개인방언, 방언과 표준어의 실제적 역사성은 구체적이고 공간과 시간상으로 국한되는 언어사용자의 소속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으로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확증의 한계를 넘어서 비교와 분류의 특성을 지닌다.

Paul이 역사적 연구방법에 우위성을 둔 까닭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은 그 발전과정에서 생성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언어학에서의 역사성은 물론 외적인 역사와는 무관하며 Pott가 언급했듯이 그와 반대인 내적인 역사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Paul은 언어학에서 역사성이란 생물학에서와 같은 단순한 자연의 역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상호교신을 통해서만 개인의 언어가 생성되며 어원은 언어형성에 필요한 요인이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범위내에서만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상호교신의 성향에 비하면 종속적 요

14) 물론 음운법칙의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사용되는 법칙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언어학에서의 법칙이란 어떤 특정의 조건하에서 무엇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뜻하지 않고 일련의 특정한 역사적 현상 안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15) 언어변화를 음운변화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특히 중시된다.



인에 불과하다(ibid. 59). 그러나 그는 통일된 분류체계내에서 언어상태(Kandler 1954)나 구조의 역사적 해석과 무관한 언어분석의 가능성(Coseriu 1958)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언어학을 단순히 언어사로 파악하였다. 그는 또한 언어의 역사적 연구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론상으로 우선적인 언어상태의 기술이 기술문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언어생활(언어변화)의 본질을 영속적인 언어변화<sup>16)</sup>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술문법에 관해서 만족할 정도의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다(Schmid-Neuhaus 1978, 149). 그의 이러한 견해가 바로 그와 현대언어학과의 공통점인 동시에 또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Paul이 언어의 상이한 발전단계를 기술하고 또 기술된 단계를 비교함으로써 언어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대체로 어떤 규칙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기술문법(공시언어학)을 역사언어학(통시언어학)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언어사실을 추상화한 두 언어단계의 비교를 통해서 언어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그의 경험주의적이고 자료중심의 언어연구는 언어변화의 일반적 규칙을 형식화하기 위해서 언어사실을 추상화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Koerner 1973, 109).

Paul은 전통적 언어이론과 연구방법의 불투명성을 지양하고 미래 역사적 연구(언어변화)의 이론적 토대를 이룩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언어과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그의 언어이론을 명백히 제시했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변화를 중시하는 역사적 연구방법의 고찰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연구방법은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일반적 조건을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론을 원리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과학과 법칙과학의 중간에 위치한다. 예컨대 그의 원리론<sup>17)</sup>은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존하는 요인의 본질과 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그는 언어외적 요인이지만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언어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러한 법칙과학 *Gesetzeswissenschaft*을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험과학과 구별하여 *nomologische Wissenschaft* (법칙과학)라고 불렀다(Maas 1973, 66f.).

전통적인 역사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일적인 언어이론으로 정립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 대응하여 개념규정이나 이론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상만을 토대로 하여 이룩되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통일성이 없다(Heeschen 1972, 18). 여러 상이한 계층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서로 다른 원칙에 의거하

16) Paul은 언어변화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17) Paul은 언어철학이라는 명칭은 너무 비실증주의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을 원리론 "Prinzipienwissenschaft"이라고 칭했다.

여 표현하거나 해명하려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언어변화 이론보다는 우선적으로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는 일반언어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물론 모든 종류의 언어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용납될 수 있는 언어이론은 적어도 왜 언어가 변화하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도 결코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언어이론은 통시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정이 불가피하며 어떤 이론은 부적합하다 현재 언어학은 과거처럼 사고를 토대로 추론된 언어이론을 또 다른 사고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대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새로운 언어이론은 그 동안 알려진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서의 통시언어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언어이론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Boretzky 1977, 40-43)

1) 언어이론은 언어변화의 결과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형태를 수집하는 데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언어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역사기술언어학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하고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언어변화의 양상을 포괄하는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변이형을 포함하는 모든 언어요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가능한 언어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어형의 선택에 관한 원인을 설명해주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어형 가운데 어느 것이 전파되고 어느 것이 소멸되는지를 알 수 있다 18)

언어구조에 관한 가설과 언어변화의 종류와 방법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언어기술 장치만을 전제로 하는 간단한 사고형식에 의거해서 성립된 이론은 아무 것도 설명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한다

2) 언어이론은 언어가 화자에 의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항상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요소가 인간의 두뇌 속에 조직화된 형태로 저장되었으므로 화자가 언제나 일정하게 그것을 구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개인의 언어수행은 비록 언어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구대상이지만 언어수행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조음장소를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언어수행이 발화된 단어의 반사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어형을 처음으로 발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언어의 내적 표현을 약간 변화시킨다. 화자는 청취된 어형을 앵무새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

18) 엄격히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주의 언어이론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는 않고 이미 존재하는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고 재현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과정은 단순한 구조주의의 모델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언어변화가 야기된 조음장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심리적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종류의 관찰에서는 언어체계와 기능에 관한 현재의 개념이 이미 알려진 변화과정의 현상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순점이 제거되었다면 왜 언어가 영속적으로 변화하는가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언어요소의 변화 또는 일반적인 언어변화의 방향에 관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사실상 언어변화의 원인에 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할 수 없다.

3) 언어이론은 언어의 특성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언어변화의 경향을 유도해 내는 일련의 법칙과 같은 가설을 내포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사이에는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미루어 보건대 언어가 임의의 형태로 변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연관관계에 관한 명제가 옳다면 일반적인 언어변화에 관한 공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명을 해 주고 한 걸음 나아가 예언까지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이전의 구조와 언어특성의 상호 종속관계에 관한 가설을 토대로 모든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시되는 과정은 물론 필수적이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고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예컨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진 균형을 다시 찾는 가능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Zipf(1965)가 주장한 이러한 이론은 언어에 관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통시언어학은 경험과학이며 그 연구대상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특정의 제한을 받는다.<sup>20)</sup> 경험과학의 경우라도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대상에 관한 지식만이 유효하고 언어기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세부적 사항도 제외될 수 없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자료가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가설은 물론이고 추상화와 이상화의 과정도 또한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상화의 과정이 없이는 개념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명칭에서 보듯이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역사적 연구방법론이다. 이 방법과 더불어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이론중심과 연역적 언어연구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경험적 사실(언어자료)중심과 언어기술의 귀납적 방법의 우위성이 인정되었다. 이 사실은 또 한편 비역사적이고 기술적인 전통언어학 연구방법의 퇴조를 의미한다. 그 결과 합리주의적이고 논리적 원칙에서 유도되었던 언어상태의 기술보다 경험적 방법으

19) 최근 특히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관한 일련의 언어심리학적 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경우에는 변형생성문법의 가설을 부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20) Lachmann의 법칙을 변형생성문법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Strunk(1976, 19ff.)의 비판을 참조하라.

로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언어상태를 설명하려는 방법이 우위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상태의 기술은 언어변화를 해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격하되었다

최근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언어변화, 언어내적인 이질성과 개별어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 2. 낭만주의 언어철학

Jones(1786)의 산스크리트 재발견 이후 그것에 관한 언어학적 관심과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심은 Schlegel(1808)에 의해서 한층 더 고조되었다. Herder, Goethe 등 독일의 지성인을 중심으로 발전된 낭만주의 사상의 팽배로 공통조어 재구와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족국가 및 문화의 형성과 발달과정,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한편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명이 모색되었다.

인간정신 활동의 발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낭만주의자들은 가장 오래된 문헌과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를 중시했다 그들은 한 민족의 언어를 그 민족정신의 발로로 간주했기 때문에 언어, 시, 민족과 역사 등에 대한 낭만주의 사상은 그 당시 문화는 물론이지만 초창기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21)</sup>

가장 오래된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역사-비교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구어 개별어간의 친족관계, 공통조어 재구와 언어변화에 대한 문제가 언어연구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스크리트는 인구어 공통조어와 형태론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Herder, Schlegel, Humboldt는 모든 민족의 이상과 노력은 문화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정치적 이상 예컨대 보편주의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Schlegel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나 발전도상에서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의 외적 식별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성과 완벽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 민족의 특성을 쟁취한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역사와 문학은 물론이고 언어학에 있어서도 민족정신<sup>22)</sup>, 국민정신, 일반정신, 민족적 언어정신 등에 관한 논쟁이 특히 Herder, Grimm, Humboldt에 의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민족주의,

21) 그 당시 유명한 낭만주의자로서 철학과 언어학에서 Herder, 문학에서 Novalis와 Tieck, 문헌학에서 Fr. Schlegel, 문학사와 문헌학에서 A. Schlegel, 언어학과 문헌학에서 Grimm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고전시대에서 그들의 이상과 숭고함을 찾았다

22) 민족정신이란 Herder에 의해서 역사철학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민족정신, 민족문학 등의 개념이 특히 중시되었고 언어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Herder와 Humboldt는 언어와 시 그리고 국가를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통일체로 보았고 언어체계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만 표현방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5)

Herder는 낭만주의의 선구자로서 Schlegel과 더불어 초기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Herder는 언어의 기원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1772)<sup>23)</sup>에서 언어를 인간의 창조물로 간주함으로써 Hamann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또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Herder에 의하면 언어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최상의 논리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sup>24)</sup> 그렇다고 언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물론 아니다. 언어는 임의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속성의 표현이다. Herder는 Aristoteles 이래로 철학자들이 주장한 사고의 우월성을 부인하고 언어와 사고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언어가 인간사고의 도구이고 내용이며 또한 형태라고 믿었다. 언어와 사고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민족의 사고유형과 문법은 오로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Robins 1967, 151f.). Herder는 운문을 특히 중요시했는데 그에게 운문은 인간성장과 발전의 증거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사고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사고의 구체화와 발전 그리고 사고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를 창조한 후에 운문을 창작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sup>25)</sup> 또 한편 그는 언어가 전인류를 결합시키는 힘이며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인류전체를 통합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Herder는 언어를 일차적으로 인간정신적 표현(자연적인 속성으로서)의 자연적 도구로서 그리고 인간이성의 발로로서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자연은 본래 인간에게 언어능력과 그 반사현상인 사고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본성)은 우선적으로 본능의 허약함에 있는데 이러한 본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더욱 발전시켰다. 본능과 자극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인간의 이성과 의식 또는 사고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승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극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인간

23) Herder의 논문은 많은 감탄사를 사용한 감상적인 동시에 지적이고 문체상으로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언어의 기원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론은 그 당시 언어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Jankowsky 1972, 37)

24) Süssmilch는 1754년에 언어의 복잡성과 완벽함을 고려한다면 언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5) Vico는 언어와 운문은 동시에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 언어를 조형미학적 범주로 취급했다

은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분별하여 이것을 본질로 인정하고 그것에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언어를 발견했고 또 한편 인간은 자연적 도구로서 언어를 소유할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erder는 인간이 언어를 생득적으로 즉 자연적 유산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조직의 특수한 생성물로서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을 사고나 의식의 특성이 아니고 자극의 강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했다 그의 언어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이론은 철학, 심리학, 문헌학 및 언어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6f.).

낭만주의 시대의 문헌학과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Schlegel인데 그는 *Geschichte der Poesie der Griechen und Romer*(1798)에서 문헌학의 최종목표가 역사라면 역사적 성향을 띤 문헌학은 철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비교언어학 초기단계에 도입된 “언어학의 철학적 시대”라는 표현이 이해되어야 한다 (ibid. 287). 그는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1808)에서 역사-비교언어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sup>26)</sup> 그 당시 문헌학과 언어학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특히 19세기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의 언어관 형성에 크게 공헌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의 연구대상은 요약컨대 언어의 존재론과 변화에 관한 개념설정이었는데 그들은 선정된 주제를 그들의 고유한 언어연구 방법으로 체계화했다. Jones, Schlegel 등이 이미 인구어의 친족관계를 논의한 바 있지만 인구어 개별어간의 친족관계 정도는 Bopp의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n*(1816)에서 규명되었다. 다시 말해서 Bopp에 의해서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으며 그의 연구목적은 원시시대의 변형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언어를 통해서 인간사고의 원형을 발견하는 데 있다<sup>27)</sup> 그러나 그는 공통조어 재구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작업은 Schleicher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Grimm 또한 *Deutsche Grammatik*(1819)에서 게르만학을 정립했다 그는 게르만어 방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듯이 게르만어의 공통조어를 재구했다. 그는 낭만주의에 도취되고 독일민족주의에 심취하여 지구상에 어느 민족도 독일어와 같은 역사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태고의

26) 언어의 체계를 비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Schlegel이 비교문법 *vergleichende Grammatik*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언어의 비교방법은 문헌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기본원리는 텍스트비판의 원칙과 동일하다

27) Bopp의 궁극적 목적은 공통조어 재구가 아니고 형태분석을 통하여 문법적 변화 즉 형태변화의 기원을 찾는 데 있었다.

언어에 대한 추구는 곧 원시민족과 그 생활방식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의 낭만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원시민족(특히 게르만 원시민족)은 원초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정신적으로 미화된 선조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총체적 개념이다

### 3. 자연주의 언어철학

19세기 초기에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대두되어 사물을 논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대 희랍인들에 의해서 이미 시도되었고 15세기 이래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관찰과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의 작용과 영향에 관해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등한시되었던 유기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28)</sup>

언어를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은 Schlegel, Humboldt, Bopp, Grimm 등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의 유기체이론에서 비롯된다. 비교문법이라는 명칭에서도 비교해부학과 관련성이 연상되듯이 Schlegel은 그 당시 발전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언어현상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어학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Jankowsky 1972, 53f.). Humboldt와 Bopp는 “유기체”라는, Bopp는 언어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법칙이라는 용어를 언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물론 Bopp가 말한 법칙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윤리적 또는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자연유기체로서 언어의 내재적 특성을 의미한다. 인구가 하나의 공동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Bopp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법칙과 기계적 법칙에 근거를 두는데 전자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음운법칙과 일치되며 후자는 모음과 음절간의 관계를 일컫는다.<sup>29)</sup> 그의 기계적 법칙은 뉴턴의 중력법칙을 언어의 형태목록에 적용한 것인데 그는 강세된 어조 다음에 비강세의 인칭어미가 첨가되는 현상을 중력(기계적) 법칙으로 설명했다.<sup>30)</sup> 이와 같이 Bopp가 언어의 내용보다 형태연구에 치중한 까닭은 언어현상에서 규칙성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였다(ibid. 57ff.).

한편 비교해부학이 Bopp의 언어이론 정립에 영향을 주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해부학은 Linnaeus에 의해서 18세기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의 생물분류 방법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Cuvier는 *Recherches sur les ossements fossiles de quadrupèdes*(1812)의 서문

28) 유기체이론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유기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의 유기체를 자연현상과 같이 직접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9) Bopp의 이론에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음운법칙이 예견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Schlegel의 자연유기체로서 신비스런 언어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30) Bopp의 후계자들은 중력법칙을 액센트에 의해서 설명했다

에서 모든 유기체는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형성하고 그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부분의 형태가 변경되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이에 대응하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인했다<sup>31)</sup> 그의 이러한 주장이 언어학자들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Grimm의 법칙에서 보듯이 파열음체계의 어느 한 요소 예를 들면 p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t와 k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한다. Cuvier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의 뼈중 어느 하나만 발견되어도 그 새의 전체구조를 재구할 수 있다고 했다. Schleicher는 그의 체계에 관한 확고한 개념을 수용하여 공통조어 재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Lyell의 *Principles of geology*(1830-33)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단계 언어 변화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비교언어학자들에게 방법론상의 원리를 제공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Bopp는 해부학의 비교방법을 동사의 형태분석에 적용해서 산스크리트 동사의 어미변화 체계를 회랍어, 라틴어, 이란어와 게르만어의 동사체계와 비교했다. 예컨대 그는 동사의 문법범주에 나타나는 태, 시제, 서법, 수와 인칭을 분석, 비교했는데<sup>32)</sup> 이러한 동사의 특징적인 항목은 꽃의 꽃밥, 약, 암술 등 상이한 조직의 특징을 비교하듯이 서로 비교하면 그 연관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Bopp는 형태분석 과정에서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체계개념을 대단히 중시했으며 형태분석을 통해서 비교방법을 정립했다. Grimm은 비교방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 Rask가 발견한 게르만어의 음운대응 관계를 체계화했다(Lehmann 1993, 24f.)

초기에는 자연과학의 용어가 언어학에 차용되었고 법칙개념이 막연히 도입되었을 뿐 연구방법론상으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과학주의 *Szientismus*<sup>33)</sup>는

31) Linnaeus는 특징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생물의 종과 속을 감별함으로써 생물학적 분류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Cuvier는 동일한 방법을 화석의 연구에 적용했다.

32) 이러한 문법범주는 이미 인도의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33)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상의 특징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주의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과학주의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서 발견된 법칙성을 다른 학문에 적용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실증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실증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실증주의적 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실증주의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인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경험적 방법과 혼동하고 있다

실증주의의 추창자인 Comte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실증주의적 방법과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는 사물에 관한 모든 지식을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을 실증주의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가 의미하는 관찰을 통해서서는 사물의 본질, 그 존재형태 또는 존재에 관해서 아무것도 언명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그에 대한 비판적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대상간의 일정한 관계를 기술하는 법칙을 유도해 낼 것을 주장했다 그에게 법칙은 종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가능한 한 다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Hegel과 Darwin의 신봉자인 Schleicher<sup>34)</sup> 시대에 절정을 이룬다. 확정된 사실을 체계화하고 일반적 법칙을 유도해 내는 데 천부적 자질을 지닌 Schleicher에 의해서 자연유기체로서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 정의되었다(Arens 1955, 205). Schleicher는 처음에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나 점차로 음의 생성 즉 음에 관한 생리학적 고찰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언어사용자인 인간 자체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음작용과 유관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일반언어학자로서 Schleicher의 자연주의 언어철학사상은 *Die Darwinsche Theorie und die Sprachwissenschaft*(1863)와 *Über die Bedeutung der Sprache für die Naturgeschichte des Menschen*(1865)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sup>35)</sup> 그는 Darwin의 자연선택설을 수정없이 언어학에 그대로 적용했고 그 실례로서 인구어를 들었다. 현재 인구어 사용자는 점차로 증가되며 그 결과 다른 언어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에 의하면 역사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은 인간의 의지가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있다. 전자에서는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후자에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법칙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연구방법은 자연과학의 방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연구결과도 정신과학의 경우에서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하다. 그는 정밀과학으로서 언어학을 역사과학인 문헌학과 엄격하게 구분했고<sup>36)</sup> 언어학자를 실용적이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가지는 가치와는 관계없이 모든 식물의 조직, 형성 및 발전법칙을 연구하는 식물학자에 비유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2f.)

Müller(1861-64) 역시 Schleicher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다. Müller에 의하면 문헌학은 문학작품 연구에 공헌하는 반면에 언어학(그의 용어로는 비교문헌학)은 자연과학에 속하며 언어학자들의 유일한 연구대상은 언어다. 따라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구어체 또는 방언도 그들의 연구대상이 된다. 그는 과학적인 고찰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Homer의 고전보다 문헌이 없는 방언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chleicher도 아메리카의 인디언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Handbuch der litauischen Sprache*(1857)를 집필했다.

---

그는 이러한 법칙은 주관적으로 무엇을 첨가하지도 않고 또 간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완벽한 의미에서 신실증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현세기의 철학과 다른 학문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통시언어학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듯하다(Boretzky 1977, 30f.)

34) Schleicher는 언제나 정확성, 보편성과 명확성을 작업원칙으로 여겼으며 입증시에서도 자기 자신은 명확성을 위해서 일생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35) Schleicher는 언어학을 경험과학으로 정의함으로써 언어학에서 철학적인 요인을 제거했다.

36) 그러나 Schleicher는 객관적인 법칙과 인간의 의지 즉 주관이 작용하는 영역인 통사론은 두 분야를 공유한다고 했다.

**Schleicher**는 자연과학에서 차용된 개념인 형태론을 유기체의 부분을 형성하는 요소의 내적 조직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언어학에 적용했다. 그의 형태론은 단어의 가분성과 기능상으로 규정된 형태에서 유도된 단어의 형식적 특성에 기초한다. 그는 자연과학을 본보기로 하여 언어형태는 언어연속체의 일부분으로서 현재의 형태는 물론 미래의 발전될 형태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주의철학의 개념인 유기체이론을 언어학에 원용했는데 이러한 유기체는 균등하고 합목적적인 내적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발전한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요인 즉 음운변화의 규칙성, 언어형태 조직의 특수성과 체계적인 언어연구 방법은 **Schleicher**에게 다음의 사항을 상호관련지어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58f.)

- 1) 언어진화의 법칙성에 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서 언어재구의 엄격한 과정
- 2) 그 자체가 복잡하나 조화되어 있고 합목적적인 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완전한 총체로서 개별어의 기술방법
- 3) 언어체계(언어적 유기체) 그 자체가 다른 유사한(또는 계통적으로 일치하는) 체계와 음운변화, 음운대응(음운법칙), 문법적 대응관계(형태론) 및 체계적인 어휘상의 유사성(어원체계)에 의해서 연관되는 완전한 총체로서 언어공동체(또는 어족)의 자연사적인 양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chleicher**는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정립하고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테두리내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어자료의 분석을 중시했다. 그는 언어자료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특성이나 현상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언어행위의 물질적 토대로서 객관적 고찰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Schleicher**에 의하면 언어는 음(물질)으로 형성된 자연유기체이며 생물과 마찬가지로 종, 속 등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성장, 쇠퇴한다.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자의적으로 변형할 수 없듯이 인간의 의지로 언어를 변화시킬 수 없다. 부연하면 언어변화는 객관적이며 자연법칙과 같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그는 자연과학으로서 언어학을 기존의 언어학 *Sprachwissenschaft*과 구별하여 *Glottik*(언어학)이라고 지칭했다(Schleicher 1873, 6f.). 언어학에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물론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학적 고찰이란 언어사실의 관찰, 기록, 분류와 엄격한 객관적 평가 등을 뜻하며 현대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일컫는다. 그는 소수의 인구에 개별어는 2000년도 넘는 오래된 문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생물학자들보다 더 용이하게 언어변화의 과정을 추적하고 새로운 어형의 출처를 확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hleicher**는 언어변화 과정만을 연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인간언어의 생성과 발전